

Nu Skin Beauty School 교육 자료

일시 : 2005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 2층

강사 :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 조성아 원장

1. 강의 주제 : 파운데이션 100배 활용하기, 피니싱 파우더(루즈 파우더)를 이용하여 파운데이션 고정하기.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스킨 톤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화장법(Soft Basic Skin Tone). 가늘고 여성스러운 얼굴, 동양적인 얼굴 화장법.
2. 고객에 대한 올바른 자세
 - 1) 고객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화장이 어렵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장점 한가지나 매력적인 부분은 있다. 이런 점을 부각 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 2) 예) 속눈썹이 짧은 여성에게는 오히려 “속눈썹이 짧기 때문에 롱애쉬 마스크라를 써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속눈썹이 길고 충성 해 보이시는데, 이 마스크라를 사용하시면 속눈썹이 더욱 길고 풍성 해 보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3. 메이크업 순서
 - 1) 클렌징
 - 제일 먼저 한다. 모공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잘 먹지 않는다. 메이크업의 시작은 항상 클렌징.
 - 클렌징 후 로션을 발라서 스킨 케어를 해 준다.
 - 메이크업의 가장 좋은 스킨은 피부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 2) 메이크업 베이스
 -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은 색 보정과 트리트먼트 기능이다.
 - 얼굴빛이 어둡거나 노란색을 띄는 사람은 핑크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이 붉거나 핑크 빛인 사람은 그린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는다. 잡티가 있는 부분, 가려야 할 결점이 있는 부분만 바른다.
 - 메이크업 베이스는 밀면서 바르지 말고, 툭툭 많이 두들기면서 발라 준다.
 - 3) 파운데이션
 - 얼굴의 중심 부분 1/3만 바른다. 헤어 라인까지 바르지 않는다.
 - 점 찍듯이 한 부 위에 뭉쳐서 바르지 말고, 처음 바를 때부터 균일하게 바른다.
 - 얼굴 외곽은 얼굴 중심에 바른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밀면서 발라 준다.

다.(아래 그림처럼 얼굴 중앙에 파운데이션을 발라 준 후 얼굴 외곽 화장은 중앙에서 바깥 쪽으로 밀어 내면서 발라준다. 단, 헤어 라인 가까이까지 바르는 것은 피한다. 이렇게 해야 입체감 있는 화장이 된다)



- 베이스에 보이는 잡티는 그냥 보이게 놔 둔다. 억지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희미하게 보이도록 놔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눈에 띄는 잡티는 컨실러로 가려 준다.
- 4) 컨실러
 - 돌출한 점은 파운데이션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작게 커버할 작은 점은 날렵한 브러시(붓)을 사용하고, 넓게 커버할 큰 기미등은 손을 이용하여 컨실러를 발라 준다.
 - 눈가 주위 잔주름에는 직접 바르지 않고, 잔주름 밑으로 발라 준다.
- 5) 피니싱 파우더(루즈 타입의 페이스 파우더)
 -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컨실러까지의 메이크업을 저녁때까지 고정 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 먼저 주름이 있어, 움직이는 부분의 파운데이션을 피니싱 파우더를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 검은색 점은 흐리게 보일 정도로만 화장 해 준다. 눈을 뜰 때, 감을 때 움직이는 쌍꺼풀의 파운데이션도 파우더를 이용하여 고정 시켜준다.
- 6) 아이 브로우
 - 힘 조절이 중요하다. 원래 있는 눈썹의 사이 사이를 매꿔 준다는 느낌으로 그려 준다. 눈썹만 잘 그리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
 - 눈썹을 심는다는 기분으로 미간에서 시작되는 눈썹 앞 부분의 1/3 지점부터 짧게 짧게 그려 준다.
 - 절대 한번에 주욱 일직선 굵듯이 그리지 않는다. 아이 브로우 뒤에 붙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정리 해준다.
 - 아이새도우를 아이브로우로 사용 할 수 있다.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눈썹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발라 준다. 절대로 눈썹의 앞쪽 끝부분을 뭉툭하게, 그리고 끝을 너무 가늘게 그리지 않는다.
- 7) 블러셔
 - 브라운 계열의 진한 색상(예 #18160636 내추럴 글로우) : 광대뼈 같은 부

위를 들어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 외곽 부분에 수직으로 발라주는 화장법에 많이 애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최근에는 핑크 계열의 블러셔를 많이 사용한다. 얼굴 볼쪽에 점 찍듯이 살짝 찍어 바른 후, 퍼면서 발라 주고, 피니싱 파우더를 발라서 그라데이션 시켜 준다.

8) 립스틱

- 입술에 묻어 있는 파우더 잔여물을 면봉에 로션등을 묻혀서 닦아 낸다
- 립스틱을 발라 준다

9) 아이라이너

- 눈썹을 뒤집어서 눈썹 사이 사이에 발라주는 것이 리얼리티가 산다. 눈 꼬리쪽을 조금 두텁게 그려 준다.
- 눈 꼬리 부분은 면봉을 이용하여 날렵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준다.

10) 아이섀도우

- 오전에는 흰색 다음 단계인 옐로우, 핑크 계열의 아이섀도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 준다. 눈두덩 전체에 바르면, 훨씬 평평하고 밝아 보인다.
- 눈 밑의 거무스름한 부분도 아이섀도를 발라준다. 단, 짙은 색상은 시선을 눈 아래로 모을 수 있으므로 피한다.

(* 10번까지가 오전 화장 순서. 오전에는 마스크라는 생략한다. 햇빛 아래에서는 헤비한 메이크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벼운 화장을 한다.)

11) 저녁 화장 : 눈

- 인공적인 조명 아래에 있는 상황이 많으므로, 눈 앞쪽의 점막 부분에 펄이 가미된 아이섀도를 발라 준다.
- 블루나 그린은 잘못 바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눈 끝 부분에 아주 소량만 살짝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만 발라 준다.
- 강한 색상의 아이섀도는 조금씩 바르는 것이 좋다.
- 눈의 깊이를 주기 위해서, 짙은 갈색의 아이섀도를 아이라인에 발라 준다.

12) 저녁 화장 : 입술

- 펄이 있는 색상은 조명 아래에서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판매를 하는 사람은 입술선이 깔끔해야 스마트 해 보인다. 입술을 너무 과장되게 크거나 작게 그리지 않는다.
- 입술이 빈약하고 볼륨감이 없다고 느껴지면, #18161602 페틀 핑크등의 밝은 색상을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 준다.
- 짙은 색상의 립스틱을 발랐을 때는 항상 번지거나, 치아에 묻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13) 저녁 화장 : 마스크라

- 아이섀도를 바르고 나면 파우더 가루 때문에 눈썹이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카라를 발라 줘야 한다.

- 초벌을 바르고, 조금 꾸득꾸득해질 때 다시 발라 주면 색상이 선명하고 오래 유지된다

* 기타 : 프레스트 파우더를 바를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은 생략한다. 파운데이션과 프레스트 파우더를 같이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헤비 해 질 수 있다.